

광주신세계, '지역 상생' 친환경 사회공헌 '주목'

올해 개점 30년...현지법인 역할 강화
아름다운 가게와 '기브 그린' 캠페인
직원 의류·소형가전 기부·수익금 전달
환경단체와 연계 플로깅·광주천 보호

올해로 개점 30주년을 맞는 광주신세계가 지역 현
지법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5일부터 14일까지 아
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기브 그린' (Give Green) 캠페
인을 진행한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임직원들이 의류와 소형가전 등 사용가능한 물
품을 기부하면 이를 판매한 수익금은 취약계층에 지
원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기브 그린 캠페인의 성
공적인 진행을 돕기 위해 매칭 그랜트 형태로 판매 수
익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광주신세계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생태
환경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 중이
다.

어린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워주고자 지난 4월부
터 10월까지 무등산 일대에서 어린이 생태교육 프
그램을 실시한다. 도심에 서식하는 수달과 새 등의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도시생물



광주신세계가 폐현수막을 이용해 만든 어린이 안전우산을 상무초등학교에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다양성 조사활동도 3월부터 연말까지 광주천 곳곳
에서 펼쳐진다.

광주신세계는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
그램 이외에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도 마련했
다. 지난 5월 28일 광주신세계 임직원 20명은 광주천
변 일대에서 에코 플로깅 활동을 벌였다. 세계 수달

의 날을 기념하고자 진행된 이날 플로깅은 천변 일
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수달 배설물 등 흔적을 관찰하
며 생태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탄소절감 캠페인
을 실시했다. 광주신세계는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쉽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텀블러 사용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왔
다. 캠페인 참여를 늘리고자 탄소절감에 참여해 인증
사진을 남긴 참가자들에게는 커피 무료 음료 쿠폰 등
을 제공했다.

지난 2024년에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이용해 어
린이용 안전우산을 제작하기도 했다. 광주신세계는
폐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어
린이용 안전우산 250개를 제작해 광주 서구 관내 초
등학교 6곳에 제공했다. 어린이용 안전우산은 어린
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표시한 숫자 30과 시야 확보를 위한 투명윈드
등을 넣었다.

광주신세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알쓸커모' 캠페
인도 눈길을 끌었다. 알쓸커모는 '알수록 쓸만한
커피박 모으기'의 줄임말로 광주신세계가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해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기부했던 친
환경 활동이다. 광주신세계는 알쓸커모 캠페인을 통
해 10kg 커피 비료 100포대와 식물재배키트를 산림
문화연구소에 기부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 임
직원들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평
소에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임
직원 플로깅 등 광주신세계의 친환경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 특강 '성료'

종이비행기 이정욱 강사 초청 강연

광주은행은 지난 2일 지역 내 저소득가
정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이
자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 중인 이정욱 강

사를 초청해 '도전과 열정, 회복의 경험'
을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청
년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 임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해 청
년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고 실질
적인 조언과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소통
의 장을 만들었다. 최권범 기자

광주경총, '매주 수요일 회원기업 돕는 날' 호응

광주경영자총협회이 운영중인 '매주 수
요일 회원기업 돕는 날'이 회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회원 기업 돕는 날로 지정
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 및 뿌리산업 등 고용노동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경총의 회원사는 807개로, 김동찬
상임부회장 등 임직원은 회원 기업이 경
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컨설
팅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직안전 및 국비

사업 유지, 회원 기업 교류 등에 전념하면
서 회원 기업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
원이 다소 부족했지만 이제는 전문인력
보강 등 안정적인 공익법인 단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경총은 앞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해 회원 기업이 성장하고 개
선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회원 기업 돕
는 날'의 주요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사
업계획서 작성요령 △MZ세대 소통 및 동
료 간 갈등 요인 해결 방안 △사내 행사 등
진행 요령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친절
서비스 및 기업 이미지 관리 △ESG 경영
등이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중남미 테크세미나서 '비스포크 AI' 선포

삼성전자가 지난 3일 멕시코 멕시코시
티에서 2025년형 '비스포크 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2025년
중남미 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테크 세미나'는 해외 주요 지역에서 현
지테크·라이프스타일 미디어와 업계 전문
가를 초청해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
고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올해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13개 국가에서 온 60여명의 참
석자를 대상으로 2025년형 '비스포크 AI
가전'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냉장고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건조기
△비스포크 AI 제트 400W 무선청소기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등 'AI 홈'을
구현하는 주요 제품을 전시했다.

또 가전 제품에 탑재된 스크린 경험,
AI 기반 에너지 절약, 빅스비 음성 제어,
스마트싱스와 가전 연동한 편의 기능 등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신 제품과 기능으로 구현
한 AI 홈 콘셉트 아파트 '샵스 하우스'를
마련하고, 참석자들이 일상 속 '비스포크
AI 가전'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직접 체험
해볼 수 있도록 했다. 박소영 기자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중기공제기금' 대출 지원

전국 884곳서 평균 6% 수준 금리
금융 접근성 취약 중기 지원 확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
금을 통해 전국 884개 협동조합 함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
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
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
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제도로 1984년부터 중
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내수 및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여고가 커지
고 있으나 대출 연체를 상습으로 우려해 금
융권은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다. 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여력이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
여하고 있다.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
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도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
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고 있어 금
리부담은 더욱 낮아지며 이용업체의 만족
도 또한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884개의 중
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기금 제
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입 및
대출상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접근
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건설
순환자원협동조합, 서울인쇄정보산업협
동조합,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충
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인천
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단법인 한
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30여개의 업
종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공제대행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공제기
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
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
(fund.kbiz.or.kr), 모바일 앱에서 가
능하다. 박소영 기자

보해양조, '명주도감 가시오가피' 출시

11가지 약용식물 숙성 과실주
'헬시플레이저' 트렌드 반영·개발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는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
협동조합(KVC)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보해 명주도
감 가시오가피'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가시오가피를 비롯해 오미자, 홍삼, 복
분자, 청문동, 백문동, 대추, 지황, 숙지황, 지구자, 백
봉령 등 총 11가지 약용식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를
주정과 함께 12년간 숙성해 깊고 풍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KVC는 1979년 사단법인 중소기업인연쇄점협회로
출발해 현재 75개 회원사, 1만8000여개의 소매점을
보유한 국내 가정용 주류 도매유통 협동조합이다. 편
의점보다 싸고, 마트보다 가까운 로컬마트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주류를 유통하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다
양한 주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해양조와 협업해 대

형 유통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보해양조는 중장년층 고객들이 소주보다 부담 없
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최근 주목받는 헬시플레이저
(Healthy Pleasure)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주
류를 개발했다. 특히 약주 특유의 텁텁한 맛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산미가 있는 과
실주 타입으로 선보이며 귀한 재료들을 소개하
는 '도감' 콘셉트의 라벨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
특성을 한눈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는 6월부터 수
도권 및 주요 광역시에 거점을 둔 KVC회사를
중심으로 유통을 시작하며 전국 로컬 마트로 판
매를 점차 확장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KVC 50주년을 기념하
고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 제품을 한정 생산하게
됐다"며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편하
게 즐길 수 있는 주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
다. 최권범 기자

